

브룩스 박수 받고 내려가자 불펜의 불쇼가 시작됐다

KIA, SSG에 5-11... 5연패 수렁
추신수에 만루홈런 맞고 '백기'



투수들의 불쇼에 KIA 타이거즈가 5연패에 빠졌다. '홀런 군단' SSG 랜더스는 챔피언스필드에서 이틀 연속 특별한 홈런 기록을 작성했다.

KIA가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시즌 5차전에서 5-11 역전패를 기록했다.

7회 2사까지 2실점으로 묶은 브룩스가 3-2로 맞선 2사 1·2루에서 내려왔지만, 구원 등판한 이준영과 장현식이 연달아 볼넷을 내주면서 밀어내기 실점을 했다.

3-3으로 맞선 8회에도 3개의 사사구를 남발한 KIA는 추신수에게 만루포를 허용하면서 백기를 들었다.

선취점은 KIA가 가져갔다.

3회초 선두타자 박찬호가 폰트를 상대로 좌전안타를 뽑아낸 뒤 최원준의 내야안타로 2루로 이동했다. 김선빈의 희생번트와 터커의 땅볼로 박찬호가 3루를 돌아 홈에 들어왔다.

리드는 오래 가지 못했다. 4회초 SSG에 행운이 따랐다.

1사에서 로맥의 타구가 3루로 향했다. 3루수 김태진이 땅볼 타구를 처리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공이 베이스를 맞고 뛰면서 안타가 됐다.

브룩스가 한우섬을 삼진으로 잡으며 투아웃은 만들었지만 정의운에게 던진 137km 슬라이더를 공략 당하면서 좌월 투런포를 허용했다.

5회말 KIA가 박찬호의 발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1사에서 좌전안타로 나간 박찬호가 도루로 2루로 향했다. 최원준의 중전안타로 3루를 밟은 박찬호는 김선빈의 땅볼 때 동점 득점을 만들었다.

6회 KIA가 다시 득점에 성공했다.

이정훈이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한 뒤 김태진의 희생번트로 2루로 갔다. 이어 류지혁이 우중간을 가르면서 1타점 2루타가 기록됐다.

하지만 이창진과 한승택이 외야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고, 악몽의 7회초가 전개됐다.

브룩스가 첫 타자 고종욱을 1루 땅볼로 잡았지만 정현에게 볼넷을 내줬다. 최지훈의 땅볼 때 선행주자를 잡으면서 투 아웃까지는 갔지만 김성현의 우전안타로 106구에서 등판을 멈췄다.

불펜이 브룩스의 승리를 지켜주지는 못했다.

1점 차 긴박한 상황에서 올 시즌 18경기에서 13.5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준영이 투입됐다.



"5연패 죄송합니다"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 KBO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5-11로 패한 KIA 선수들이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윌리엄스 감독의 바람과 달리 이준영이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고 강판 됐다. 2사 만루에서 장현식이 투입됐지만 역시 볼을 연달아 던지면서 밀어내기 볼넷이 기록됐다.

이와 함께 브룩스의 실점이 올라갔고, 승리는 사라졌다.

8회초 SSG에 한방을 내주면서 승부의 추가 기류였다.

이번에도 볼넷이 밀미가 됐다.

장현식이 1사에서 박성환에게 우측 2루타를 맞았다. 1루수 파울플라이로 투아웃을 만든 뒤 정현을 몸에 맞는 볼로 내보냈다.

정해영으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정해영이 최지훈과 김성현에게 연달아 볼넷을 내주면서 밀어내기로 역전을 허용했다.

그리고 추신수를 마주한 정해영이 초구에 홈런을 허용했다. 좌측으로 향한 공이 낙하하면서 풀을 때렸고 추신수의 KBO리그 첫 만루포가 장식됐다.

KIA는 전날에는 최정에게 솔로포를 내주면서 KBO리그 40년 역사 첫 16년 연속 10홈런 기록의 조연이 됐다.

볼넷으로 자멸한 KIA는 9회에도 3실점을 하면서 5-11, 5연패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원준 '어깨 자랑' ... 빅리그 우익수 출신 추신수 홈에서 잡았다

이틀 연속 '홈 보살' 기록

투수에 힘이되는 외야수 되고파

"시도 자체를 못하게 하는 외야수가 되고 싶다"며 웃은 KIA 타이거즈 최원준이 이틀 연속 '어깨 자랑'을 했다.

올 시즌 KIA의 주전 우익수로 자리한 최원준은 지난 18일 특급 송구로 '빅리그 우익수' 출신 추신수의 발을 잡았다.

KIA가 0-4로 뒤진 5회말 1사 2·3루에서 SSG의 정의운이 플라이가 최원준 앞으로 향했다. 꽤 거리가 있던 플라이가 3루 주자가 추신수였던 만큼 SSG의 5번째 점수가 올라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최원준이 홈으로 레저 송구를 했고 추신수의 발보다 빨리 공이 홈플레이트에 도착했다. 이날 최원준은 5타석에서 안타 없이 볼넷 하나만 기록했지만, 수비에서 홈런만큼이나 짜릿한 장면을 만들었다.

추신수를 상대로 '어깨 자랑'을 최원준은 19일 경기에 앞서 "팀이 많이 지고 있어서 무리한 송구를 했다. 점수가 비슷했으면 3루 송구를 생각했을 텐데 더 점수 주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무리한 송구였는데 운 좋게 정확하게 가서 아웃이 됐다"고 웃었다.

"운이 좋았다"고 웃었지만 최원준은 19일에도 레저 송구로 박수를 받았다. 2-2로 맞선 6회초 2사 1·2루에서 SSG 박성환의 타구가 2루수 키를 넘어 우익수 앞 짧은 안타가 됐다.

빠르게 달려온 최원준이 공을 잡아 홈으로 송구를 했다. 주자 로맥의 발이 빨랐다는 판정이었지만 비디오판독 결과 아웃이 선언되면서 최원준은 이틀 연속 홈 보살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주로 중견수 자리에서 뛰었던 최원준은 올 시즌 자신의 장점에 집중해 우익수 준비를 했다.

최원준은 "캠프 때부터 이현군 수비 코치님과 송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깨가 나쁜 편이 아니니까 자신 있게 송구하라고 하셨다. 말

씀대로 하니 요즘 송구가 정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원준이 강한 어깨로 정확한 송구를 하면서 상대 주자들도 쉽게 뛰지 못하는 모습. 자신감을 얻은 최원준은 볼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우익수가 되는 게 목표다.

최원준은 "(상대가 주루할 때 망설이는 것을 보면) 기분 좋은데 주자가 뛰었을 때도 정확히 던져서 상대 주루 코치님들이 스톱할 수 있는 외야수가 되면 좋겠다"며 "뛰어서 아웃시키는 것도 좋은데 시도 자체를 못하게 하는 외야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좋은 수비로 투수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

최원준은 "지난해 중견수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 핑계지만 수비에서 많이 부족해서 투수들 형들 많이 못 도와줬다. 올해는 수비 준비 열심히 했고, 호령이 형이 수비를 잘하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준다"며 "투수형들에게 수비로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의리 출격 날짜 변경 오늘 SSG전 선발 등판



'특급 루키' 이의리의 출격 날짜가 시변경됐다. 이의리는 21일 삼성 원정이 아닌 20일 SSG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KIA 이의리가 20일 SSG와의 홈경기를 통해 시즌 7번째 등판을 소화한다.

KIA는 우천취소 여파로 맹덴이 18일 경기에서 나서게 되면서 이날 경기를 준비했던 이의리 등판 날짜를 조정했다.

28일 이의리가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인 만큼 앞서 27일 등판을 소화할 수 있도록 21일 삼삼전으로 이의리의 등판 날짜를 옮겼다.

하지만 25일 프로야구 전 경기가 순연되면서 KIA는 전체적인 투수로테이션을 고려해 20일 이의리 출격으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25일 순연은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예비엔트리 선수들의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에 따른 결정이다. 지난 3일 1차 접종에 나섰던 예비 엔트리 선수들은 24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각 구단의 형평성을 위해 25일 경기를 쉬어 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TD 볼파크에서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보스턴 레드삭스 타선을 상대로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스데이' ... 류현진, 7이닝 7K 무실점 시즌 4승

보스턴전 완벽투 8-0 승리 이끌어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1위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 올 시즌 최고의 호투를 펼치고 개인 3연승 포함, 시즌 4승을 따냈다.

류현진은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TD 볼파크에서 열린 보스턴과의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 4피안타 무사사구 7탈삼진 무실점의 완벽투

를 펼쳤다.

류현진은 팀이 6-0으로 앞선 8회초 트레비스 버건에게 마운드를 넘기고 에이스의 임무를 마쳤다.

토론토가 이후 2점을 더해 8-0으로 승리하며 류현진은 개인 3연승 포함, 시즌 4승(2패)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이 7이닝 이상을 소화한 건 올 시즌 3번째다. 그중 무실점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2.95에서 2.51로 대폭 떨어트렸다.

유격수 보비셋의 연이은 아쉬운 수비에도 7회까

지 투구 수가 꼭 100개로 효율성도 만점이었다.

류현진은 그동안 보스턴을 상대로 3번 선발 등판해 승리 없이 2패 평균자책점 4.24로 고전했다.

류현진은 오른손 타자 몸쪽으로 예리하게 휘어져 들어가는 커터와 바깥쪽에 속 꺼지듯 가라앉는 체인 지업의 기막힌 앙상블로 보스턴에 멋지게 설득했다.

야구 통계 사이트 베이스볼 서번트를 보면, 류현진은 이날 투구 수 100개를 포심패스트볼 31개, 체인지업 26개, 컷패스트볼 21개, 커브 15개, 슬라이더 4개, 싱커 3개로 채웠다.

포심패스트볼 평균 시속은 89.5마일(약 144km), 최고 시속은 91.5마일(약 147km)이었다.

토론토는 류현진이 마운드를 내려온 뒤 구단 공식 트위터를 통해 "류현진은 자신이 엘리트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또 영문으로 'Ryu is mesmerizing(최면을 걸듯 매혹시키다)', 한글로 '류는 매혹적입니다'라는 글도 남겼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화요일(Tuesday)과 류현진의 성을 섞어 '류스데이(Ryuesday)'. 우리의 에이스가 7이닝 삼진 7개 무실점을 했다"고 적었다.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은 류현진이 토론토의 좋은 라인업을 상대로 7이닝을 막아냈다고 "빈티지(vintage) 류였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